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23년 7월 23일 (넷째 주일)

성경본문 : 레위기 20장 6-9절

설교제목 :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레위기 20장의 율례는 반드시 목숨으로 지켜야 할 율례들입니다. 만일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 죽음으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레위기 20장의 구조 분석이 좀 필요합니다. 레위기 20:2-6은 우상숭배에 대한 금지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20:27은 다시 우상숭배금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20장 내용의 큰 틀은 우상숭배금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구조 아래에서 6-9절이 연결됩니다. 6절에 보면,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우상을 따라 다니는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우상숭배자들입니다. 즉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우상숭배금지입니다. 그러면 왜 우상숭배를 하지 말아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하지 말고 스스로 깨끗하여 거룩해야 할 이유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 이라는 것입니다.(7절) ‘여호와’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왜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합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언약이 무엇입니까? 결혼입니다. 결혼한 부부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남편과 아내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이후에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나만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은 이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범죄는 우상숭배가 됩니다. 언약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숭배의 죄를 다루지 않습니다. 따라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죄입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언약을 파기하는 행위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6:24) 즉 재물을 사랑하면서 겸하여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8절/ 참고 신명기 3:15-40)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숭배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와 규례와 명령대로 사는 것입니다. 보이는 우상에게 한 번도 절한 적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는 곧 우상숭배자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거친 세상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종말을 사는 자들의 삶은 모든 삶이 고난입니다. 종말은 주님의 초림과 재림의 사이,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미 이 땅에 실현된 현재적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미래적 하나님 나라의 사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삶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평강입니다.(요14:27) 예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것은 염려와 두려움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평강을 깨는 염려와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합니다.(요16:33) 어떻게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까? 그것이 요한복음 14장과 16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의 서두의 말씀은 하나님이 농부이신데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들어주시기와 가치치기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들어주시기와 가치치기가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더불어 예수님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겠다” (요14:18)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마28:20) 이 약속이

어떻게 실현됩니다? 요한복음 14장과 16장의 내용이 바로 교회와 성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교회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교회와 성령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이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 오늘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힘을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의 삶에서 말씀대로 행하며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심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방편이 성령과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레위기 구약입니다. 구약에 가장 중요한 은혜의 방편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입니다. 구약의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을 주신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9절을 봅시다. 9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왜 갑자기 하나님만 섬기라, 즉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내용에 부모공경이 갑자기 뛰어나옵니까? 제 5계명은 부모공경의 의미와 더불어 구약의 지상명령입니다. 구약의 지상명령이 쉼마입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도록 하는 것이 구약의 지상명령, 쉼마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5계명이 실천될 때,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때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방편은 구약에서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저주하지 말라는 규례가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즉 우상숭배하지 않는 말씀대로 사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은혜의 방편이 뭡니까?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걸고 가르쳐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할 수 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가정과 교회에서 분명한 말씀 교육, 신앙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하고 이야기해 온지가 벌써 30년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위기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도 없습니다. 무엇이 위기입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위기의 본질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안사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회복은 어디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맘몬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음란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성공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가정과 교회에서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을 지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삶의 목적이 된다면 한국교회는 반드시 회복됩니다.

※.말씀 생각해 보기

- 1) 이스라엘 백성이 왜 우상숭배하지 말아야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해 봅시다.(레20:7)
- 2) 하나님만 사랑한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봅시다.

※.말씀 나누고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한지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